

“도쿄올림픽 개최 결정 전후 ‘검은돈’ 송금”

IOC 위원 아들에 4억원 보내 미국·프랑스 당국 문서서 확인 일본측 “사용 내역 전혀 몰라”

2020년 올림픽 개최지 결정 과정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측근이 검은돈을 받았다는 의혹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송금 내역이 미국 당국 등의 문서로 확인됐다.

도쿄 올림픽 패럴림픽 유치위원회(유치위)의 일을 맡은 회사가 라민 디악(87·세네갈) 당시 IOC 위원 아들 파파맛사타 등에게 거액을 송금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아시아신문 등 일본 언론이 21일 보도

했다. 보도에 따르면 싱가포르 업체 블랙타이딩스(BT)는 2020년 올림픽 개최지 도쿄 선정 전후로 파파맛사타 및 관련 회사에 36만7000달러(약 4억2656만원)를 송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사실은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 미국 버즈피드 뉴스, 아시아신문, 교도통신, 라디오 프랑스 등이 확보한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와 프랑스 당국 자료로 확인됐다.

자료에 의하면 2013년 8월 27일과 같은 해 11월 6일을 포함해 2014년 1월 27일까지 BT의 계좌로부터 파파맛사타가 보유한 러시아 계좌에 약 15만 달러가 송금됐

다. BT는 또 파파맛사타와 관련된 회사인 PMD컨설팅의 세네갈 계좌에 2013년 11월 6일~같은 해 12월 18일 21만7000달러를 보냈다. BT는 이에 앞서 2013년 7월 29일과 같은 해 10월 29일 유치위로부터 232만5000달러(약 27억305만원)를 송금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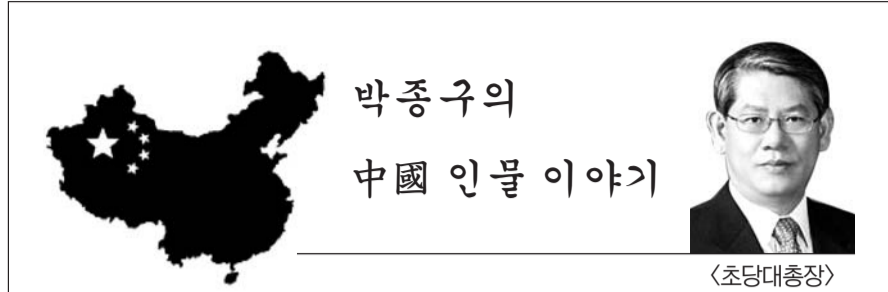
이와 별도로 BT는 파파맛사타가 넉 달 전 구입한 고급 시계 대금 명목으로 파리의 귀금속·시계점에 2013년 11월 8일 8만5000유로(약 1억1719만원)를 보내기도 했다. 파파맛사타와 관련 회사가 송금받은 돈 및 시계 대금을 합하면 한국 돈으로 5억4천만 상당에 달한다.

IOC가 2020년 올림픽 개최지를 도쿄로 결정한 것은 2013년 9월 7일이다. 전체

상황을 보면 2020년 올림픽 개최지 결정 직전부터 유치위가 BT에 거액을 송금했고 이후 BT는 유력한 IOC 위원 아들 및 관련 회사에 돈을 보낸 것이다.

IOC 위원 아들 라민 디악은 당시 개최지 선정에 관한 투표권이 있었다. 그는 2015년까지 16년 가까이 IOC 위원을 지냈고 아프리카 등 타국 위원에게 많은 영향력을 지닌 인물로 평가받았다.

개최지 결정에 관한 부정할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은 2016년에 이미 불거졌고 프랑스 당국이 수사하기도 했다. 당시 일본 올림픽위원회(JOC)는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자체 조사팀을 꾸려 조사한 후 BT가 어떤 식으로 자금을 썼는지 유치위가 알 수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박종우의 중국 인물 이야기

〈초당대총장〉

〈250〉 신기질

신기질(辛奇疾, 1140~1207)의 자는 유안(幼安)이고 호는 가현(稼軒)으로 산동성 제남 역성 사람이다. 사(詞)의 대가로 유명, 주방언, 강가와 함께 사대사인(四大詞人)으로 불린다.

남송 고종 소흥 10년(1140)에 태어났는데 조부 신전과 부친 신문옥 모두 높은 관직을 역임했다. 1127년 정강지 변으로 북송의 수도 개봉이 금군에 유린되고 북송 왕조가 붕괴되었지만 그들은 신중하지 않았다. 문화 한족의 강한 자긍심을 지녔다. 신기질은 우국우민의 가정 분위기에서 성장하면서 강인한 반오랑개 정서와 태도가 형성되었다. 들은 호방파(豪放派)의 중심인물이 되었다. 그는 남송 호방파의 제1인자로 평가받는다. 남송 시대의 정서를 반영해 사에는 강하고 처량한 분위기를 이용하려는 의도였다. 조정으로부터 충민(忠民)의 시호를 하사받았다.

노년에는 강서 상요에 은거해 가현이라는 별장을 지어 은거했다. 그의 호는 이를 단 것이다. 상요에 거주하면서 20여년에 걸쳐 많은 시와 사를 지었다. 우국시인 육유와 성리학자 주희와도 교류하면서 유유자적의 삶을 영위했다. 사는 만당(晩唐) 무렵 문인들의 관심을 받았고 5대 시대 남당의 군주인 이육에 이르러 크게 발전하였다. 북송의 소식은 강서시파의 중심 인물로 송사의 품격과 깊이를 한단계 끌어올렸다. 신기질은 소식의 창작기법을 계승해 들을 소신(蘇辛)으로 부르기도 한다. 들은 호방파(豪放派)의 중심인물이 되었다. 그는 남송 호방파의 제1인자로 평가받는다. 남송 시대의 정서를 반영해 사에는 강하고 처량한 분위

금나라에 격렬히 저항한 남송 우국시인

남송 정권에서 신기질의 비판 정신과 항금 의지는 더욱 깊어졌다. 고종 소흥 말 경경(耿京)의 항금병(抗金兵)에 들어가 금군과 여러 차례 싸웠다. 자신이 이끈 2천명의 군대를 경경이 이끄는 충의군(忠義軍) 휘하로 합치고 스스로 지휘자 대신 하급 직급인 서기 역할을 기꺼이 수행했다.

신기질의 설득으로 경경은 남송 조정 에 귀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경경의 부장인 장안국이 쿠데타를 일으켜 경경을 죽이고 금나라에 투항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신기질은 분기탱천해 충의군을 이끌고 장안국과 금나라 장수의 회석 자리를 급습해 장안국을 체포해 남송 조정에 넘겼다. 장안국은 처형되었다. 그의 기상과 의기가 이토록 굳건했다. 그러나 남송 정권은 주화파의 거두인 재상 진화가 장악하고 있어 대금 화평 기조를 쫓 수 없었다. 수도인 함안 대신에 주로 지방관으로 근무토록 함으로써 중앙에서의 정치적 영향력을 최소화하였다. 저주지주 때에는 세금을 낮추고 유민들을 모아 민병과 둔전을 경작토록 하였다. 이후 담주지주 겸 호남안무사, 북주지주 겸 북간안무사 직을 역임했다. 간관의 탄핵으로 연산에 머무르기도 했다. 진강과 용흥 지부를 거쳤다. 은퇴 생활 중 추밀도승지에 임명되었지만 병사했다. 금과의 전쟁을 앞두고 대금 강경론자인 그의 명성이 불쑥 풍긴다.

65세때 지은 대표작인 영우락(永遇樂)은 험난한 시대를 사는 사대부의 한과 의지를 잘 보여준다. “천고의 세월 에 강산은 의구한데 영웅은 어디갔나. 옛날 손권이 도모하던 곳은 어디인가.”(千古江山 英雄無處 孫權處). 누구에게 물을건가. 염파장군 늙었지만 아직 건재한지를(憑誰問 陳侯老矣 尙能 飯否). 추노아(鶻奴兒)라는 사에서도 근심과 애환속에서 스스로의 삶을 관조하는 자세를 잘 표현하고 있다. “어릴 때에는 근심 뜻도 모른채 즐겨 놀은 누대에 올랐었네. 이제 근심 뜻을 알기에 입에 올리려다 그만두었네. 입에 올리기를 그만두고는 쾌청한 가을이라고 말하네.”

남송의 사는 북송의 사와는 시대적 상황이 다른 관계로 표현에 차이가 발견된다. 상대적으로 변영과 안정을 누린 북송의 사가 안락함과 여유를 강조했다면 남송의 사는 불안과 격정 그리고 쫓기는 마음을 빈번히 표현하고 있다. 북송의 시인 이청조와 신기질은 제남 출신의 동향인이다. 이청조의 사가 신기질로 넘어오면서 북송과 남송의 사의 변화를 느낄 수 있다. 신기질은 오랑개에 격렬히 저항한 무장의 삶과 저항 시인의 삶을 동시에 살았다. 그의 작품에서 문과 무, 저항과 은일의 조화를 느껴볼 수 있다.

레드카펫 사라진 에미상 코로나에 무관중 시상식 10개국에 온라인 중계

“팬데믹스(PanEmmys-팬데믹과 에미상의 합성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미국 방송가의 최대 축제인 제72회 에미상 시상식이 20일(현지시간) 온라인으로 열렸다.

올해 할리우드의 첫 메이저 행사 테이프를 끊은 에미상 시상식은 코로나19 시대에 열릴 각종 시상식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자리였다.

ABC 방송을 통해 3시간 동안 방영된 에미상 시상식은 화려한 드레스와 턱시도를 차려입은 할리우드 스타들의 레드카펫 행사도, 시상식장을 꽉 채운 관객도 없었다. 대신 시상식은 미국과 영국, 독일 등 10개국 125곳을 연결하는 온라인 행사로 진행됐다.

시상식 본무대가 로스앤젤레스(LA) 스테이플스 센터에 마련됐지만, 관중석은 텅 비어있었다. ABC 방송의 간판 토크쇼 ‘지미 키멀 라이브’를 진행하는 지미 키멀이 스테이플스 센터 무대에 사회자로 나섰고, 수상자를 호명할 12명의 일부 출연진과 특별 게스트만이 키멀과 함께 LA 무대를 지켰다.

키멀은 “팬데믹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 코로나 확산을 막지도, 산불을 끄지도 못했지만 우리는 재미있는 일도 필요하다”는 농담으로 시상식의 시작을 알렸다. /연합뉴스



‘진보 아이콘’ 긴즈버그 애도 20일(현지시간) 미국 메인주 포틀랜드 시민들이 고(故)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대법관의 별세를 애도하며 고인의 초상화 앞에 촛불을 밝히고 있다. 27년간 미국 연방대법원을 지킨 긴즈버그 대법관은 ‘진보 진영의 아이콘’으로 불려왔다. 지난 1981년 연방대법관에 오른 샌드라 데이 오크너에 이은 두 번째 여성 대법관으로서 ‘여성 최초’라는 수식어를 달고 다니며 미국 사법 역사에 뚜렷한 족적을 남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시진핑 “14억 중국 단결하면 산·바다 덮을 거대한 힘있어”

‘14차 5개년’ 계획에 집중 시시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14억명의 중국이 단결하면 산과 바다를 덮을 거대한 힘이 있다며 각자 임무에 힘쓰라고 주문했다.

이는 미국을 넘어서 세계 최고를 목표로 하는 중국의 차기 경제발전 계획인 14차 5개년 계획(2021~2025년)에 집중하라고 지시하는 자리에 나와 주목된다.

21일 인민일보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지난 17일 후난성 창사에서 열린 기층 대표 좌담회에서 14차 5개년 계획의 마련에

대한 기층 간부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이런 입장을 표명했다. 차기 경제발전 계획은 미국의 의존을 줄이고 자율적인 발전을 추구해 세계 최고 국가로 도약하는데 주요한 임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의 발전은 중요한 전략적 기회의 시기에 처해있다”면서 “기회와 도전은 모두 새로운 발전과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시 주석은 “우리는 정세를 정확히 분석하고 발전 추세를 파악해 온중구진(穩中求進·안정 속 진전)을 견지해야 한다”면서 “발전과 안전을 통일적으로 계획해 국내

대순환을 전제로 국내외와 국제가 쌍순환하는 발전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오늘까지 발전해온 사회주의 중국이 이른 성과를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누가 베푼 것이 아니다”면서 “인민들이 중국 공산당의 지도 아래 열심히 노력하고 용기를 낸 결과”고 평가했다.

시진핑 주석은 “14억명의 인구를 가진 중국에서 모두가 작은 힘만 보태도 산과 바다를 덮을 수 있는 거대한 힘을 응집할 수 있다”면서 “각자 임무를 다하면 공산당과 국가의 사업은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815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3.1%~8.15% 금리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키겠습니다

각종 불법, 탈법, 고금리로 빌린 무서운 고리채, 그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신협이 해방시켜 드립니다

순수 국내자본 신협이, 대한민국 서민을 평생 든든히 지키겠습니다

알고계시나요? 신협의 7대 포용금융 프로젝트

- 고금리 대출을 3.1%~8.15%로 대환해 드리는 815 대출
- 3~9개월 등 고금리 대출 원금에 한해 무이자 대출
- 다자녀 가구에 가구에 2억~4억 원의 저금리 대출
- 3~9개월 등 55세 이상 서민을 위한 무이자 대출
- 저금리 대출을 원하는 서민을 위한 저금리 대출
- 55세 이상 소상공인 대출
- 저금리 소상공인 대출
- 저금리 소상공인 대출

평생 어부바 신협

광주문화신협 ☎ 1644-7990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대한민국 민족자본 신협이 다시 한 번 시작합니다

1960년대의 신협이 그러했듯, 오늘의 신협 역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켜가겠습니다

한국 금융의 힘, 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신협의 고리사채 추방운동 민족자본 신협은 1960년대부터, 서민들의 생활을 옥죄어 온 고리사채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신협 815 해방 대출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거나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지원하는 신협의 대표적인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대상자	신협 내부심사기준(신용등급 등)을 충족하는 고객 중 ①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3개월 이상 받고 있는 고객 또는 ②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	대출기간	최대 5년 (기한연장 포함)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이내	상환방식	만기일상환 또는 매월 원금(일부) 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대출금리	연 3.1%~8.15% 이내 (고정금리)	필요서류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기타 필요 서류

문의처: 문흥지점 266-4150, 양산지점 573-4150, 운암지점 528-4150, 운암산지점 513-4150, 매곡지점 572-4150, 청단지점 576-4150